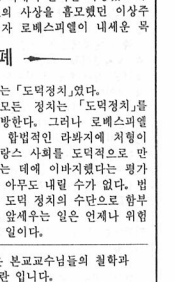


1974년의 초여름은 잔인한
절이었다. 한 달에 3백54하
만대에 올라가기도 하는
조 경치의 절경에서 다라지
는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의 죽음에는 이렇다할 불
인 요산 없다. 11월에 처
린 이래 지저분해진 채리
로베스피에르의 정권 가져와
게 갑자기 재판을 시작
하는데 특징이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여름이 막바지에
달던 7월 27일 이튿날은 로
스피에르 권좌에서 쫓겨나고
로 다음날 같은 단두대선
숨을 거둔다. 평생 독신



독자칼럼

전에 연행되어가는 그걸은 차
민중, 통일을 염원하는 이렇
정면으로가 걸어야할 순로의
있었다. 이제 수정전선은 독
재군의 심판대로 오를것이지
과감한 실천과 조목에 대한
철저한 사색을 통해 민족의 자
위이고 평화적인 민족통일이
성공을 할려주었다. 또
50년이 걸리는 1백년이 걸
리는 이해야 할 민족 통일의
선과 당위성을 깨우쳐주어 하
우 모두에게 다독여 더욱
그 후 현실적인 노력의 과제를
해 주었다.

이제 수정 선화가 깨워 준
민통일의 뜻은 남북 7천만 마
의 가슴속에 싹 발아 떠날다
나를 촉진하며 나는 도대
성을 들었다.

[김현철]

(인문·철학)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했다. 미군만 모으고도 수사를 위해 열렘기라는 그걸은 자민주, 통일을 염원하는 이땅 청년화도가 가장 선교의 도제다. 이제 수정전환은 미국의 실패에서 오를것이지 과감한 실천과 조정에 대한 확신 사물을 통해 임명의 자라고 회귀적인 민족주의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 50대이 걸리는 1년여간 일종의 추악하다 보면 통일의 필요성과 광명성을 깨우치게 하 우리 모두에게 활하게 대국하고 현실적인 노력적인 재돌려 주었다.

그런데 이승만 실배가 바뀌운 통일이 꽃은 반쪽 7천년 국통이 아니라 활짝 개나리 같은 신선화가 나는 또다른 세상을 들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우체국장

